

교육공동체 활성화 포럼 개최

해남교육청, 지역 협력 체계 구축 목표 학생들에게는 나눔의 장이 되도록 노력



해남교육청은 19일 전남도학생교육원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해남마을교육공동체의 날 및 해남마을교육공동체 포럼을 개최하였다.

해남교육지원청은 2019년 농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공동체 연수, 해남학생기회학교, 해남마을학교를 운영하며 학교와 마을이 연계된 프로젝트 수업과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축제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2019. 해남마을교육공동체의 날

은 1년 동안 교육청-학교-지자체-마을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며 운영하였던 활동을 해남의 모든 학생들에게 나눔과 동시에 앞으로 해남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바라는 취지에서 계획되었다.

행사는 체험마당, 놀이마당, 전시마당, 홍보마당, 공연마당, 장터마당, 포럼마당으로 나뉘어져 운영되었고, 각 부스 운영은 학교나 학생이 아닌 학부모 네트워크, 지자체, 마을학교, 지역민 등이 준비하여 48개 부스로 운영되었다.

‘연결하자! 연대하자! 학교-지역-사람’의 슬로건을 걸고 운영된

포럼에서는 채호기 장학사의 ‘2019. 해남마을교육공동체 1년’에 대한 발제와 함께 행촌미술관 이승미 관장, 북일초 허건 교사, 신평호 북일교육공동체추진위원장, 해남군청 박선미 평생교육팀장, 순천풀뿌리교육자치지원센터 임경환 센터장, 해남군의회 박상정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해남의 마을교육공동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오전 해남마을교육공동체 포럼에 이어 오후에는 ‘해남학생이 바라는 해남’을 주제로 학생 포럼이 이어졌다.

장성모 교육장은 해남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교육 때문에 머물고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해남’을 만들기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별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해남마을교육공동체의 날과 해남마을교육공동체 포럼을 통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 상생해야 함을 공감하고, 지역과 학교가 서로 소통하며 해남마을교육공동체가 더욱 더 활성화 되리라 기대한다.

해남=서명환 기자

광주교육연수원, 행정실장 정책 역량강화 위한 연수



각급 학교 행정실장 대상 300 여 명 초대 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이뤄져

광주교육연수원이 지난 19일 시작한 ‘2019년 행정실장 교육정책 역량강화 연수’가 22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광주 각급 학교 행정실장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연수는 행정실장 역량을 강화하여 소통하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행정실장의 갈등관리능력과 역할에 대한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분임토의, 현장체험 등 다양

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교 조직 내에서 중간관리자로서 조직 구성원 간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의 갈등해결을 위한 공감 커뮤니케이션’ 등 특강이 운영된다.

또한, 각급 학교 행정실장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정보 공유와 함께 학교 현안과제에 대한 분임토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원행정 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광주교육의 굳건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교육연수원 김동일 원장은 “학교현장에서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실장의 역할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역량 강화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흥공공도서관, 학교에 인문학 꽃을 피우다

장흥공공도서관은 11월 19일 장흥유치중학교와 장흥관산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역사 인문학 강연”을 운영하였다.

이번 강연은 장흥 관내 중학생들의 독서 흥미 유발 및 인문학적 소양 향상을 위해 희망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송용진 작가의 ‘송내관의 역사이야기’ ‘도전, 열정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강연에 앞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강연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를 높이고자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송내관의 공필여행’ 등 송용진 작가의 저서를 구입하여 학교도서관에 비치하고 학생들이 읽도록 독려하는 등 작가와 저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용진 작가는 내관 복장으로 등장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도전하는 삶’을 주제로 수많은 기회와 도전에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를 작가 본인의 인생 이야기로 재미있게 풀어내었다. 또한 삶의 주제는 자기 자신이므로 학생들이 스스로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격려

해 주었다. 학생들은 송내관의 재치 있는 입담과 몸짓에 강연 내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고, 빛나는 눈빛으로 작가의 말을 경청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강연을 들은 유치중학교 3학년 학생은 “요즘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잘 할 수 있는 일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 힘든 건 앞으로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견뎌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암군 청소년, 글로벌 리더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자”



영암군청소년수련관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청소년·스피치 리더십 비전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스피치 리더십을 향상시켜 자신감 있고 당당한 마인드로 성장하는 동기 부여와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첫째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가볍게 몸을 풀고 스피치를 잘하기 위한 연습 방법 및 호흡을 통한 낭독기법, 좋은 목소리 만들기 위한 보이스트레이닝 프로젝트 등 멘트를 활용한 자기소개 훈련을 실시했다.

저녁식사 이후에는 촛불의식을

통해 고마웠던 분이나 부모님에게 평상시 전하지 못했던 생각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둘째 날에는 2분 이내의 원고를 암기하여 자신 있게 발표하고 표현하는 훈련과 숲 해설가를 통해 도립공원으로 선정된 불갑산에 대한 해설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 한(영암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다른 사람 앞에서 쉽게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하여 나의 목소리에 대해 생각하며 발전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며 “다른사람 뒤에 숨기에 급급했던 나 같은 청소년들의 자신감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좋은 캠프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당당하게 소감을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취업 고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해답을 찾다!

취업 시즌을 맞아 전남 직업계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취업 사관학교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2019년도 취업 시험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등 우수기관에 전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220여 명이 대거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11월 14일 기준)

공무원은 전라남도청, 전라남도교육청, 국가직 지역인재 9급, 부

서관 등 97명이 합격했고, 공공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에 10명이 취업했다.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16명, 대기업은 포스코건설,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에 100여 명이 합격했다. 이들 우수 기관에 취업한 전남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는 22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관도 다수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합격한 학생들 중에는 공무원 등 우수기관 취업을 목표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다수여서, 중학교 때부터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진학지도가 더욱 질실히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이현희 미래인재과장은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우수기관에 대거 취업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